

가계금융부채증가에 관한 경제적 고찰

A Study on Economic Impact of the Recent Surge in Household Financial debt.

池 光 植 *

目 次	
I. 서 론	IV.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II. 가계금융부채 현황	V. 결 론
III. 가계금융부채 증가 요인	

I. 서 론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구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으로 수출촉진을 위주로 하는 대외지향적인 경제전략, 자본축적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자도입의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신용불량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향후 잠재적 성장 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 하에서 가계금융부채가 한국경제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연체율 증가와 더불어 가계금융부채는 경기부침의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별주체들의 부채감당능력이나 위험을 충분히 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가계금융부채의 증가는 국가경제를 위하여 매우 위험하다. 가계금융부채의 급격한 팽창은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고 이는 한국경제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세원 투명성 확보, 소비 활성화,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상경학부 강사, 경제학박사

투자축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 경기회복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각종 신용카드 장려정책 이 재벌계 카드사의 무분별한 외형경쟁으로 이어져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대거 금융시장에 유입되었고, 신용카드 회사 및 은행권의 가계금융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이 급증하였으며 연체율 상승과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최근 개인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최근에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간주체들의 채무 감당 능력은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어 경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계금융부채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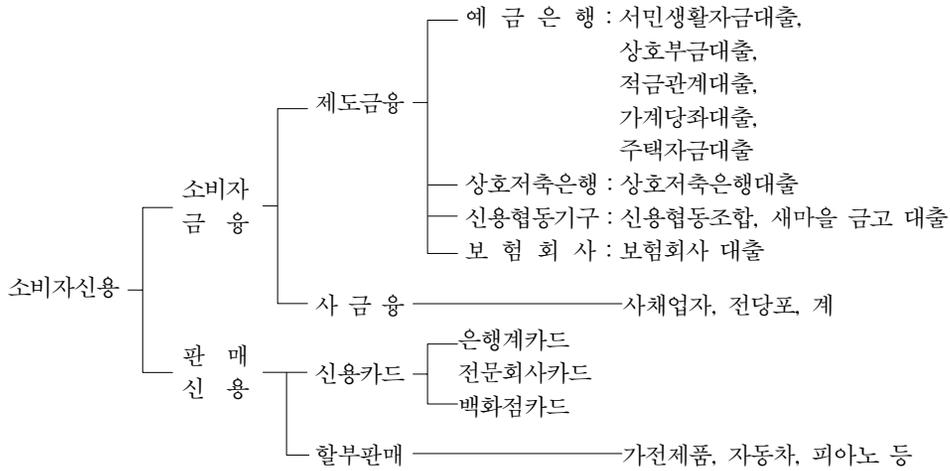
본 논문은 2장에서는 가계금융부채 현황을 3장에서는 가계금융부채 증가 요인, 4장에서는 가계금융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가계금융부채 현황

소비자신용은 금융기관이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비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하거나 판매대금의 상환연기 등을 통해 신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의의 가계금융부채에 해당된다. 소비자 신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불완전 고용상태 하에서의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Keynes의 “일반이론” 중 “유효수요이론(Theory of effective demand)”에 의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Mead, Dusenberry 등 Keynes학파는 소비자신용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성장 또는 경제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경기조절정책수단으로 소비자신용의 유효성을 주장하였다.

Keynes 이후 소비이론은 M.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과 Ando-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 이론들은 소비자신용이 개인의 주어진 평생소득하에서 소비의 최적배분을 가능케하여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도모한다고 봄으로써 새로운 소비자신용이론의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신용은 직접금전이 제공되는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과 물품 또는 용역의 형태로 신용이 제공되는 판매신용(merchandise credit)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신용은 소비자금융으로 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에 의한 가계대출, 사채 등의 사금융과 판매신용으로 카드사, 할부금융사, 판매업자 등의 물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신용이 있다.

가계금융부채증가에 관한 경제적 고찰



[그림 II-1] 우리나라의 소비자신용 체계

가계신용은 소비자신용 중에서 사금융에 의한 소비자금융 부분을 차감한 제도금융권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문의 가계부채는 가계 외에도 소규모 개인기업 및 민간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개인부문 금융부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1. 가계금융부채의 증가

개인금융자산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정책, 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요인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가계금융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중대 및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완화정책 등으로 저금리 체제가 형성된 데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폐지 등 소비자 신용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았고, 대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는 등 탈 은행화가 진전되면서 시중의 잉여자금이 가계부문으로 유입되었다. 은행은 자산운용 면에서 리스크가 높은 기업대출 보다는 수익성과 안전성 등에 유리한 가계대출에 집중하는 등 소매금융에 치중하였다.

가계부채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세를 보이면서 개인 금융부채 증가율이 금융자산 증가율 보다 더욱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부문 금융자산/부채 비율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2.5 정도로 상승하다가 2001년부터 급감하면서 2004년 9월말 현재 1.96으로 하락 외환위기

産 業 研 究

때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신용불량자 및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표 II-1> 형태별 기관별 가계금융부채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가계대출잔액(A)	165.8 (-10.3)	191.9 (15.7)	241.1 (25.6)	303.5 (25.9)	391.1 (28.9)	420.9 (7.6)	449.4 (6.8)
예금은행	52.9 (-4.7)	76.3 (44.2)	107.2 (40.5)	156.7 (46.1)	222.0 (41.7)	253.7 (14.3)	276.3 (8.9)
상호저축은행	7.4	6.8	5.6	6.1	6.9	8.0	8.9
신용협동기구 ¹⁾	37.9	37.8	38.4	40.0	45.7	58.9	69.1
신탁우체국예금	17.1	12.5	6.4	3.2	2.3	1.4	1.2
보험기관	21.5	23.5	27.1	32.6	38.7	42.9	45.3
여신전문기관	12.0	16.2	33.6	43.7	57.1	37.3	26.2
할부금융회사	2.3	2.6	3.6	5.3	10.2	6.8	5.2
신용카드회사	9.7	13.6	30.0	38.3	46.9	30.5	21.4
국민주택기금 등	17.1	18.8	22.8	21.2	18.3	18.7	22.1
판매신용잔액(B)	17.8 (-32.0)	22.1 (24.0)	25.8 (16.9)	38.2 (47.7)	47.9 (25.7)	26.6 (-44.5)	25.3 (-5.1)
할부금융회사	5.8	6.1	4.4	6.2	8.1	4.4	4.3
판매회사	5.6	6.2	4.2	3.1	2.6	0.8	0.5
신용카드회사	6.4	9.8	17.2	28.9	37.2	21.4	20.5
가계신용잔액(A+B)	183.6 (-13.0)	214.0 (16.5)	266.9 (24.7)	341.7 (28.0)	439.1 (28.5)	447.5 (1.9)	474.7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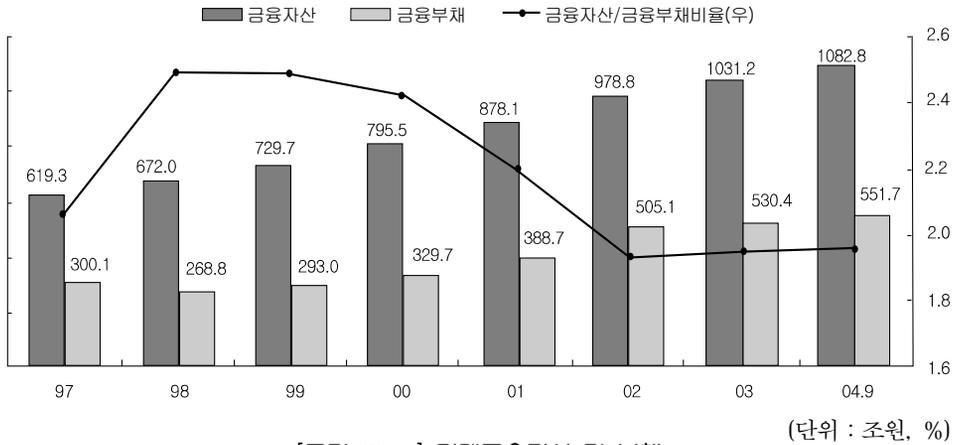
주 : 1) 신탁,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2)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1/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중 고금리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신규대출 축소 등으로 감소하였던 가계의 금융부채 총잔액은 1999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가계금융부채 증감규모는 1998년 27.6조원이 감소하였으나 1999년 30.4조원을 시작으로 2001년 74.8조원, 2002년 97.4조원, 2003년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8.5조원, 2004년에는 27.1조원으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금융부채 잔액은 2003년 447.5조원, 2004년에 474.7조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 212.2조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가계금융부채증가에 관한 경제적 고찰



[그림 II-2] 가계금융자산 및 부채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998년에서 2002년말 까지 연평균 41.5%의 성장속도를 보였으나 2003년 이후 성장속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의 총자산대비 비중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에는 10.2%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말 현재 23.2%로 크게 증가하여 은행들의 자산운용이 가계대출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II-2>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총자산 및 총 대출대비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가계대출/총자산	10.2	9.6	12.4	14.8	20.7	22.7	23.2	24.4
가계대출/총대출	30.1	28.6	32.4	36.5	44.8	48.3	48.1	48.9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 호

가계대출의 총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대비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8.1%를 나타내고 있어 기업대출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가계로의 자원 배분이 정상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계대출의 총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대비 비중 56.0%로 기업대출 비중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이며 1990년대 중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0년부터 상승세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3년부터는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잔액은 1990년 말 3.6조 달러에서 2000년 말 7조 달러, 2005년 3월말 현재 10조 5,153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가계대출의 급증은 주택모기지론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産業研究

<표 II-3> 미국의 가계부채¹⁾ 추이

(단위 : 십억달러, %)

구 분	90년대 ²⁾		00	01	02	03	04	05.1/4
	90~94	95~99						
가계부채	4,548.7 (6.4)	6,439.9 (7.2)	7,009.2 (8.8)	7,629.4 (8.8)	8,364.8 (9.6)	9,231.6 (10.4)	10,276.2 (11.3)	10,515.3 (10.7)
모기지론	3,184.9 (7.0)	4,452.0 (6.9)	4,820.1 (8.3)	5,284.4 (9.6)	5,912.8 (11.9)	6,649.1 (12.5)	7,568.2 (13.8)	7,768.6 (12.9)
소비자신용	1,021.0 (4.9)	1,553.1 (8.8)	1,731.3 (11.5)	1,870.7 (8.1)	1,954.4 (4.5)	2,047.0 (4.7)	2,140.8 (4.6)	2,165.5 (4.3)
기 타	342.8 (6.4)	434.8 (4.9)	457.8 (5.3)	474.3 (3.6)	497.6 (4.9)	535.5 (7.6)	567.2 (5.9)	581.2 (6.3)
주택가격상승률	1.9	4.0	6.9	8.0	7.0	6.9	11.0	12.5

주 : 1) 연말기준. ()내는 증가율(05. 1/4는 전년동기대비)

2) 해당기간 중 마지막 연도말 잔액. 기간중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의 단순평균

자료 : 미 연준,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

주택가격 상승률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여 2004년에는 11%로 급상승하여 주택모기지론의 급증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4> 미국의 가계부문의 총자산, 총부채 및 순부채 추이

(단위 : 조달러, 계절조정후 연율)

구 분	1995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4. 3/4
총 자산	32.63	49.19	49.26	54.33	56.97
(금융자산)	21.61	34.96	32.48	34.47	35.28
(실물자산)	11.02	14.24	16.78	19.86	21.70
총 부 채	5.07	6.83	8.00	9.60	10.29
(주택모기지)	3.34	4.46	5.30	6.66	7.26
(기 타)	1.73	2.37	2.70	2.94	3.03
순자산	27.56	42.36	41.27	44.73	46.68
(순금융자산)	16.54	28.13	24.48	24.87	24.99
순자산/가처분소득	5.10	6.33	5.51	5.83	5.41
(순금융자산/가처분소득)	3.06	4.20	3.27	2.99	2.90

자료 : JP Morgan, US Weekly Prospects, 2004. 12

가계금융부채증가에 관한 경제적 고찰

최근 가계의 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데다 2004년 3·4분기 현재 가계의 순자산은 46.7조달러로 가처분소득의 5.4배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소득 증가,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 등으로 가계의 건실한 재무구조가 유지됨으로써 향후 소비지출의 강세지속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2000년 이후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시중자금이 집중된 은행권이 주택담보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금융권별로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2년까지 은행차입을 통한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등 2002년 중 폭발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이는 가계대출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둔화에 2003년에 비해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표 II-5> 은행 가계대출 추이(기간중 증감)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연중	1/4	2/4	3/4	4/4
가계대출	306,022	225,114	51,402	63,389	53,246	57,077
(주택담보대출)	212,921	162,758	29,883	53,026	40,951	38,899

3. 은행의 비중 증가와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비중 감소

가계금융부채의 비중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대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신전문 기관인 할부금융사,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대출 등 신용카드 여신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신용카드 관련 차입도 신용카드사의 경쟁적 고객확보 전략 및 은행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간편한 대출절차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축소 등 영업구조 개선 노력의 영향으로 이용실적 급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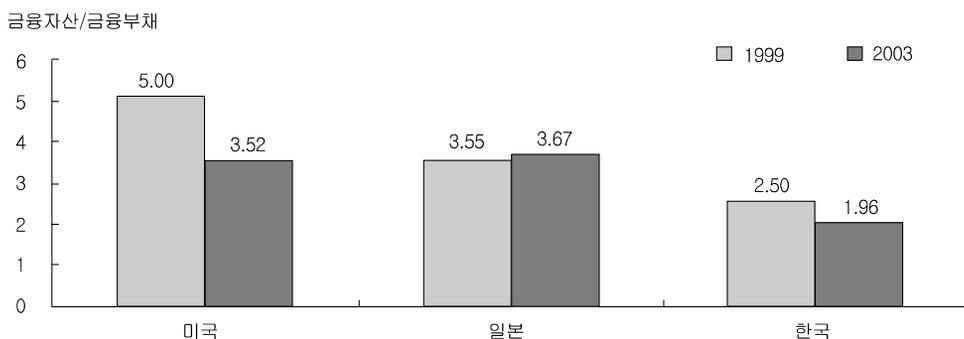
<표 II-6>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현금서비스	30.4	33.9	32.7	48.1	145.3	267.7	357.7	239.5	127.6
판 매 신 용	36.6	38.2	30.8	42.6	79.6	175.7	265.2	241.0	230.2
합 계	67.0	72.1	63.5	90.7	224.9	443.4	622.9	480.5	357.8

주 : 1) 전업카드사(10개사) 및 겸업은행(14개사) 합계
 자료 : 한국여신금융협회

국내 가계금융자산은 미·일에 비해 금융자산/부채 비율이 낮은데다 최근 개인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폭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금융자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경제 거품이 붕괴되면서 보유주식 가치가 급락하고 가계 금융자산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나타내면서 주택구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 급증하여 금융자산/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일본의 경우 경기호전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한 반면 노후생활 대비를 위하여 금융부채는 오히려 축소로 인하여 금융자산/부채 비율은 상승하였다.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미국 FRB "Flow of Funds Accounts",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경제계산"

[그림 II-3] 한·미·일 개인금융자산/부채 비율비교

이는 국내경제가 선진화되면서 가계부의 중심축이 실물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되고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면서 금융자산 규모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점이 견고한 금융자산의 성장과 선진화된 금융자산 구조로의 변화에 부담이 되고 있다. 금융경제 및 금융상황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 높은 금융부채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다.

Ⅲ. 가계금융부채의 증가요인

1. 기업여신수요 감소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부채비용 감소정책 등으로 부채비율이 1997년 396.3%에서 2004년 104.2%로 크게 하락하였고 차입금의존도 역시 급감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은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기업들이 차입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여신수요가 급감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중자금이 은행권으로 집중되었으며 정부의 기업부채비용 감소 정책으로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이 급감 하는 등 기업 여신 수요가 감소하게 되자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금융기관들이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가계대출시장에서 대출을 확대하였다.

<표 Ⅲ-1> 제조업 재무구조관련 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부 채 비 율	317.1	396.3	303.0	214.7	210.6	182.2	135.4	123.4	104.2
차입금의존도	47.7	54.2	50.8	42.8	41.2	39.8	31.7	28.3	24.0
자기자본 비율	24.0	20.2	24.8	31.8	32.2	35.4	42.5	44.8	49.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호

2. 건전성 수익성위주의 경영

은행대출을 통한 가계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 및

안전성이 높고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도 유리함에 따라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한 데 원인이 있다.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높아 가계대출은 수익성에서 기업대출보다 유리하고 대규모 부실채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아 대출자산의 안전성 측면과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기업대출의 경우 보다 위험가중치가 낮아 신용위험관리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경기부진으로 기업의 은행대출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서 소매금융을 전략부분으로 설정하고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한 데 기인한다. 가계대출의 급증은 민간소비증대로 이어져 우리경제에 활력소가 된 측면도 있지만 가계대출 부실가능성 증대 및 이에 따른 은행 등 금융기관과 부실화 가능성 대두 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3. 저금리와 부동산가격상승에 따른 주택구입수요 증대

자금수요측면에서 저금리의 지속은 주택관련 대출수요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가계대출수요가 급증하였다. 저금리 지속으로 내구재 구입을 위한 가계일반자금과 부동산 투자 및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즉 저금리하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가계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중형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계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하고, 저금리 때문에 금융기관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주택에 투자하기 위하여 가계자금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저금리 지속에 따라 가계부문의 자금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기업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개인들이 창업확대 등에 가계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부문에서 대출수요 증가는 소비성향 증대에 원인이 있으나 이보다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수요가 증가한 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 2001년 이후 아파트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유주택자의 경우 투자 목적이나 주택규모를 늘릴 목적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가격 폭등에 따른 불안심리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매우 컸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증가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다시 가계대출 증가와 아파트가격 상승이 상호 상승작용을 한 것이다. 이러한 주택구입 수요 증가는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의 급상승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다른 투자 대상과 달리 가계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기간 중 저금리의 가계대출에 의한 아파트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았다. 대출기간 중 시장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투자를 한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 가계대출 평균이자율을 제하는 단순계산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

다. 이와 같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라는 자산이 존재하고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확대하는데 낮은 대출이자율로 가계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수요 급증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목적 부동산인 아파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목적의 수요 뿐 아니라 미래의 주거 확보에 불안감을 느낀 대부분의 가계가 아파트 매입에 나서게 되고 부족한 자금은 가계대출로 충당하게 되어 아파트 가격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 금리(30년만기 연평균)가 1990년 10.0%에서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이후는 5~6%대를 유지함으로써 차입 이자부담이 매우 낮아졌다. 이와 같은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차입자의 거래비용 및 초기 원리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춘 대출상품을 도입함으로써 Credit availability가 크게 증가하였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 및 그들의 자녀세대, 이민자 등이 주택구입을 늘리면서 주택모기지론 차입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가계대출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4. 신용카드 규제의 완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제한 폐지로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 급증 하였다. 은행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절차로 한도제한이 폐지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의 경쟁적인 고객확보 전략을 취함으로써 가계금융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향후 신용불량자 관련 조치의 핵심은 첫째로 신용불량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상쇄적 거시정책(compensatory macro policy)¹⁾ 노력과 더불어 고용증진을 위한 인턴 및 재취업제도를 운용하면서 시장자동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둘째로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효율화시키며, 셋째로 개별차원의 위험관리노력이 사회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개인 신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1) 시장마찰의 완화

신용불량자의 급증으로 개인 신용시장이 경색되면서 금융부문의 불안정성과 연관된 소

1) 상쇄적 거시정책이란 넓은 의미에서 소극적인 반경기정책(counter-cycle policy)을 말하고 있다. 신용흐름상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기조상의 변화가 아니라 미세·보정적 차원의 조정을 뜻한다. 현 맥락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이나 대출한도 축소가 아닌 위험관리강화로 예상되는 부정적 충격을 감안한 중립적 정책기조를 의미하고 있다.

비·투자위축 등 거시 경제적 주름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외에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대부업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불법추심 등을 억제하여 서민금융 애로를 해소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에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채권의 부실화를 막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는 대출시 신용조사를 엄격히 실시해야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축적을 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책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리게 하여야 한다. 경기가 거품으로 한꺼번에 꺼지는 것을 막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하며 금융기관은 가계대출과 카드서비스에 몰두하는 대신 산업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성장과 경제발전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되찾아야 한다. 신용불량자 기준적용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가계신용에 대한 건전성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조기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 금융기관에서 개인 신용정도에 따라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한다.

신용불량자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화하는 것보다는 신용정도에 따른 차별화가 상시 준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책은 두가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기운의 경직적 적용을 점차 폐지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적극적 채무재조정 노력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으므로 신용불량자 구분을 점차적으로 약화(dynamically phase out)시켜 최대한 신속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채무 관련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의에 의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 거시 및 노동정책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시고용과 인턴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신용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청소년과 퇴직자의 임시고용 및 재취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및 금융 감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노동시장의 집단적 움직임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저하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신용흐름의 문제를 근본 차원에서 노동수급상의 불균형 문제로 인식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자본유치에 있어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노사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발표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용기반을 구축한다.

IV.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가계금융부채의 증가와 소비위축

가계금융부채의 증가는 개인의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을 감안하여 소비수준을 결정하며 향후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가계는 금융부채를 확대하여 유동성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킨다. 반면 향후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가계의 금융부채를 축소시키게 되며 소비도 위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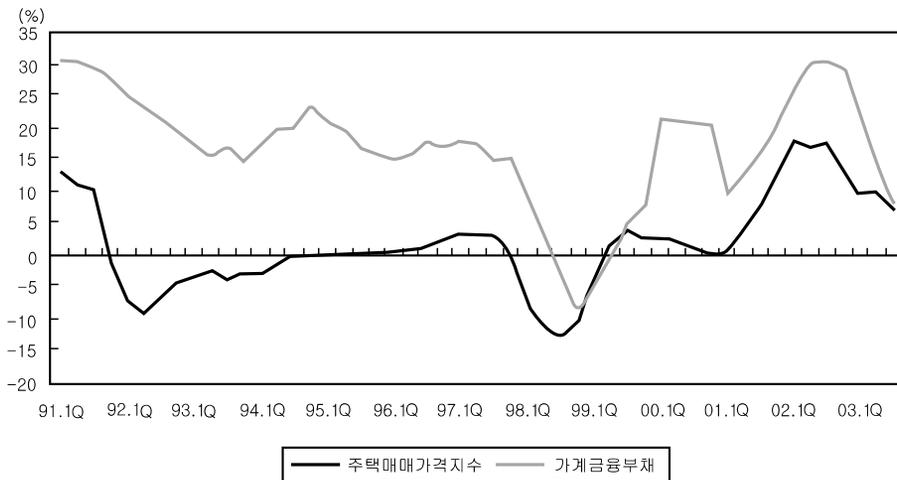
가계금융부채는 경기 국면에 따라 변화하는 달라지는 경기순행적 효과를 갖고 있다. 가계 부문 부실화우려에 따른 신용흐름의 급격한 위축은 단기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의 저하를 가져와 경기에 대한 비관적 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금융부채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채무상환부담에 따른 소비위축 등의 효과가 자산가격의 조정과 함께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2. 자산시장의 거품

가계금융부채의 증가는 부동산 투자로 연결됨에 따라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는 구입비용 및 전세비용의 하락으로 주택자금 관련 가계대출수요가 급감함으로써 가계금융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가계금융부채의 증가율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은 상호영향을 미치게 되어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제에서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증가는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경우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금융부채가 거시적인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자산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

아파트가격의 폭등은 같은 세대(generation)내의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자간에 노력이나 창의성의 차이에서 유발되지 않는 빈부격차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기성세대와 그런 기회자체가 없는 신진세대간에 빈부격차를 가져오는 더욱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기성세대가 올려놓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우리의 미래세대가 턱없이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국민소득이 증가하여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가격 폭등은 가계대출 폭증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주거불안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산성 하락, 불로

소득 확대에 따른 근로의욕 감퇴, 근로자 임금투쟁격화의 원인 제공 등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파트가격 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는 아파트가 다른 자산과는 달리 좁은 국토로 인해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국민 생활의 근거지가 된다는 점에서 소유에 따른 투자수익이 거의 나지 않도록 하여 투기목적이 아니라 주거목적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세제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림 IV-1] 가계의 금융부채 및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추이

3. 가계부문의 부실화

가계금융부채가 자산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질 경우 과거 선진국가들의 경험을 되풀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향후 경기가 급랭할 경우 신용 제약하에서 한계 신용자들의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전반적인 대출시장이 냉각되어 가계부문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가계금융부채가 증가한 상태에서 자산가격의 하락은 담보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금융기관의 대출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실물부문에 악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통하여 자산가격과 담보가치 하락을 유도한다. 이는 결국 대출축소, 부실채권확대로 가계부문을 부실화하게 된다.

가계금융부채증가에 관한 경제적 고찰

<표 IV-1> 거품이후 선진국의 가계부실 사례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신용팽창이 버블을 확대 재생산 -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주택대출 및 소비자 할부금융이 급격히 증가 - 전체 은행 대출의 증가율은 11-12%에 머물렀으나 소비자 할부금융은 86년 이래 40~100%에 달하는 증가율을 지속, 1~2%에 머물렀던 주택대출 증가율도 10배 가까이 증가 - 가계 대출 급증은 일본 은행들의 공격적인 경영과 부동산 담보대출에 기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금리 자율화 등 금융 규제완화 이후 일본 은행들간 공격적인 대출이 확산 (부동산 담보가액의 120%까지 대출) · 결국 금융기관의 공격적 대출과 저금리를 기반으로 “지가·주가상승 → 자산의 담보가치 상승 → 추가 대출 → 지가·주가상승”의 악순환 고리가 작동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가상승이 기업이익 증가에 비하여 과도하여 버블 양상 - 2000년 2월말 주식시장의 신용잔고가 2,435억 달러로 197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1999년 순저축률은 -4.0%로 사상최저 수준 (이는 기업과 개인들이 GDP의 4%에 상당하는 돈을 빚지고 있고, 소비가 소득보다 4% 많다는 것을 의미) - 4월 들어 미국 주가가 하락장세를 보이자 신용잔고의 담보 부족 사태가 발생해 마진콜이 대규모로 발생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금융 활성화가 버블에 일조 - 주택가격 상승률이 84년 8%에서 점차 증가해 88년에는 25%를 상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저당 대출건수는 80년 4천호에서 91년 8만호까지 급증해 은행의 주택금융시장 점유비중이 80년 5.5%에서 89년 31%까지 급증 · 결국 경기 과열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시장이 급랭하고 가격이 폭락

자료 : 최희갑, 최근자산가격 동향과 버블화 가능성(2002)

윤성훈, 영국의 경제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2002)

Kunio Okina, The Asset Price Bubble and Monetary Policy: Japan's Experience in the Late 1980s and the Lessons(2001)

정영식, 미국 증시의 폭락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2000)

4. 경기위축

적정규모의 가계금융부채의 증가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과도한 가계금융부채규모는 자산가격의 급락 및 금리상승 등을 야기시켜 소비를 급속히 위축시킬 수 있다. 자산가격이 하락하거나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할 경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가계의 채무부담이 높아지고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가계부문은 부채규모를 축소하고 금융권도 가계대출 리스크가 상승함에 따라 대출심사 강화 등을 통해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기존대출을 회수함에 따라 가계부채규모가 급속히 축소되고 가계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 함으로써 경기는 점점 위축된다. 즉, 가계금융부채의 상환부담증가 → 자산가격 하락 → 소비감소 → 경기위축 으로 장기화의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가계부문에서 부채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누적이 장기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자산가격의 상승과 조정과정에서 부실누적이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과도한 가계금융부채 상태에서의 금리인상은 가계금융부채의 부담을 높이므로 채무과잉으로 인한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도 있다.

V. 결 론

한국경제의 가계금융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연체율 증가시 발생할 수 있는 경기부침의 주 원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개별주체들의 부채감당능력이나 위험을 충분히 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계금융부채의 급증은 국가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금융부채가 급증은 공급측면에서 기업여신수요가 감소하였고, 수요측면에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부채 누적이 장기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용공여 확대는 자산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안정위주의 금리정책이 필요하다. 금리인상은 부채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채무과잉으로 인한 장기침체의 우려가 있다. 가계금융부채의 증가는 소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계부문을 통한 지출 흐름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자산시장의 변화는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경기의 위축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었지만 경기불황에 따라 가계금융부채금의 상황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가계금융부채가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 제공을 막으려면 금리를 상승시켜 가계의 채무 부담을 상승시켜 채무상환능력을 저하 시킬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제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향상되었을 경우 세제조정과 금리조정을 하여 경기가 선순환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심경섭 · 지광식, 『화폐금융론』, 범한서적, 2004.
- 최공필 · 이명환 · 이병윤 · 이진범, 『가계신용증가의 경제적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04.
- 최희갑, “자산가격동향과 버블평가”, 삼성경제연구소, 2002.
- 한국개발연구원,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향”, 2003.
- 한국은행, “2004년 자금순환동향(잠정)”, 『조사통계월보』, 2005.6.
- _____, “최근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금융시스템리뷰』, 2005.1.
- _____, “최근 미국 가계부채의 증가 현황 및 평가”, 『해외경제정보』, 2005.8.
- Bernanke B. and M. Gertler, “Monetary Policy and Asset Price Volatility”, in *New Challenges for Monetary Policy*,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2000.
- Borio, C., N. Kennedy, and S.D. Prowse, “Exploring Aggregate Asset Price Fluctuations Across Countries: Measurement, Determinants, and Monetary Policy Implications”, *BIS, Economic Papers* 40, 1994.
- Catao, L., and S.L. Rodriguez, “Banks and Monetary Shocks in Emerging Markets: How Far Can We Go with the Credit View”, *IMF Working paper* 68, 2000.
- Choi, G., “Structural Changes and the Scope of Inflation Targeting in Korea”,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Series*, Forthcoming in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02.
- Christoffersen P. and T. Slok, “Do Asset Prices in Transition Countries Contain Information about Future Economic Activity?”, *IMF Working Paper* 103, 2003.
- Mishkin Frederic S.,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Addison Wesley, 2004.
- Ludvigson, S., “Consumption and Consumption and Credit: A Model of Time-Varying Liquidity Constraint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1997.
- Kashyap, A.K. and J.C. Stein,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Bank Balance Sheets”, *Carm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151195, 1995.
- Peter M. Garber, *Famous First Bubbles: The Fundamentals of Early Manias*. Cambridge, MA: MIT Press, 2000.

<ABSTRACT>

A Study on Economic Impact of the Recent Surge in Household Financial debt.

Kwang-sik Chi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roblem of increasing household financial debt. Since the IMF bailout program in 1997,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economic promotion policies for transparency of tax base, activation of consumption and stimulation of investments for economic growth.

The surge in household financial debt ha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acro variable, including consumption, and also asset prices. The volume contains detailed on the impact of consumer credit on the macro variable, and also examines the issues related with bank risk management and the widespread credit card delinquency. The overall findings confirm the insight that risk management is much more important and during times of stability than after conditions seriously deteriorate.

In short, given that the Korean economy is already credit constrained, the authorities need to be prudent in avoiding a vicious cycle of credit contraction and help strengthen the market function despite the temporary frictions in the market.

* Instructor, PH.D in Economics, School of Commerce and Economics, Dankook University.